

텍스취를 콘트라스트 시킨 복장은

입는 사람의 개성을 느낀다

텍스취라고 함은 옷감의 표면감이란데 투과해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엷선의 이랑이 있는, 위사 이랑이 있는 · 바슬바슬한 · 반들반들한 · 잔털이 있는 · 매끈한 · 페이퍼라이크한 · 무거운 듯한 · 가벼운 듯한, 따뜻한 듯한 등이 라고 하는 보이는 느낌이나 만져지는 느낌이다. 텍스취를 콘트라스트 시킨 복장은 맛이 있기도 하고 입는 사람의 개성을 느끼기도 한다. 슈트의 모양과 같이 상하가 같은 텍스취의 옷감을 사용한 복장으로는 입는 사람의 개성이란데 취미가 양호함 등은 그다지 느낄 수 없다. 개성이 복장 속에 숨겨져 버리기 때문일 것이다. 울이 가늘고 매끄러운 소모옷감에 매끄러운 넥타이, 해도면을 사용한 셔츠, 이러한 착장은 위엄 있는 또는 지위가 있는 자의 착장이다.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의 심벌이다. 그것을 서민의 모범으로 하는 것이 남성들의 세계이다. 이것이 입는 사람의 매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지네스라든가 포멀한 것으로는 이러한 옷감이면 우수하다 캐주얼한 복장에서는 텍스취의 콘트라스트는 당연하다. 그래서 색상까지 같게 하여 버리는 비지네스나 포멀한 옷에 셔츠나 베스트, 넥타이 정도는 텍스취를 콘트라스트 시켜서 맛을 내는 것이다.

봄기운은 입춘에서 나타난다. 24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인 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입춘은 실제로는 아직도 추위가 머물고 있는 겨울의 일부이다. 하면 따뜻함을 의미하지만 의외로 추위가 매서운 날이 많다.

우리나라는 3, 4월의 봄이 되면 시폰 스카프라든가 솔을 두르게 된다. 어느 정도 가볍고 투과해 보이는 느낌은 봄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투과해 보이는

직물이라면 색상은 연하게 보이고 겹치면 중색이 생겨 변화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트랜스페어런시 효과는 두꺼운 직물옷감에서는 맛볼 수 없다. 직물을 겹칠 때 생기는 중색은 옷감이나 복장만이 갖는 독특한 색상이다. 도료를 칠하여도 얻을 수 없다. 중색은 투과해 보이는 천을 2~3매 또는 4매를 겹칠수록 중색은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시폰 스카프라면 겹친다던가 접었을 때 프린트한 색상 무늬가 겹쳐 농담을 나타내기도 하고 염색하지 않았던 색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방법은 블라우스나 드레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옷이라면 착용하는 여성의 움직임에 의하여 생기는 겹쳐지는 변화가 더욱 아름다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색상, 투과해 보이는 옷감으로 만든 옷의 겹쳐 있는 것도 또한 트랜스페어런시가 매력적이다. 옷감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투과해 보이는 천을 2매 겹친 것과 같이 또는 3매 겹친 듯이 짜기도(이중직)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옷감을 사용하면 겹쳐 입지 않고서도 트랜스페어런시 효과는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겹쳐 입는 멋내기 효과는 우수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때로 변화하는 색상면의 매혹을 연출할 수 있는 점에 있다. 그러한 색상면은 이색교직이 만드는 샘브레이 효과와 더불어 복장의 색·옷감의 색이다.